

저출산 가정의 자녀 양육실태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 내 비교 분석 연구*

Understanding of Parenting Issues From the Families with One Child :
Comparisons Between the Two Groups of Mothers by Maternal Employment Status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전임강사 서 소 정**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Seo, So-Jung

<Abstract>

This study had a three fold-research purpose. The first research purpose was to understand parenting issues the families with one child are facing. The second purpose was to examine any differences in variables of interest in this study between the two subgroups of this study sorted by maternal employment status. Finally, this study examined which variables of interest in this study predict maternal self-efficacy. The variables of interest in this study included: 1) family demographic variables, 2) maternal self-efficacy, 3) parenting stress, 4) maternal satisfactions with contextual factors, and 5) maternal perceptions of effectiveness of birth-rate promotion policies. The sample consisted of 276 mothers selected from the one child families and the mothers sampled were asked to fill out the self-administered surveys which had been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Overall, the mothers of this study did not have high levels of maternal self-efficacy, when SES of this sample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Non-working mothers had higher levels of maternal self-efficacy than working mother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parenting stress levels between the two sub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in maternal percep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birth-rate promotion policies. Furthermore, a wide range of variables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predictor of maternal self-effica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주요어(Key Words) : 저출산 가정 (one child family), 자녀양육 (parenting), 양육효능감 (maternal self-efficacy), family social policy (가족-사회정책)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지속적으로 사회생활을 원하는 여성은 약 87%에 이른다 (통계청, 2003), 실제 어린 아동 (0세~5세)을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42.9%에 불과하다고 보고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3). 또한 자녀를

둔 여성들이 취업 및 재취업을 꺼리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약 39%의 여성이 “육아문제”라고 응답한 것은 여성의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는 출산을 저하로 이어지게 한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 2003).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어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취업 및 재취업은 죄책감이나 불안감 등 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수반함과 동시에 양육기능을 지원하는 전반적인 가정지원체계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현실과 맞물리게 되면서 취업도 가정에서의 선택적 결정-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 이 논문은 2004 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모과제 발표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 주 저 자 : 서소정 (E-mail : seosojun@ewha.ac.kr)

저출산 결정요인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에 의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저하에 있어 큰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수, 2004).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질적 양상을 기하기 위해 맞벌이를 해야 할 경우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등 소자녀화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출산 가정에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 비취업 기혼 여성 역시도 자녀양육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이상 자녀수(2자녀)보다 더 적은 자녀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저출산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결과 (김승권, 2004)는 실제 출산을 저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어느 한 요인에서라기보다는 여러 요인들 (높은 교육비용, 자녀에 대한 노후보장 기대감소,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결혼 연령의 상승,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급격한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형성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저출산 가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출생아수의 감소는 아동에게 있어서 형제나 친구관계 형성에서 오는 풍부한 사회적 경험의 기회를 감소시켜 아동발달을 저해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1차적 사회화의 장인 가정에서, 특히 저출산 가정 내 모자간의 지나친 밀착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양육문제를 자녀양육기능 강화 및 아동발달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저출산 가정 집단 내 비교 분석을 통해 양육관련 변인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예측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양육관련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들 (일반가정대상)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적인 관점 (자녀양육)에서 저출산 가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변인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양육효능감이다. Bandura (1989)의 자아효능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양육효능감은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된다 (문태형, 2002; 최형성, 2001; Dorsey, 1999; Teti & Gelfand, 1991).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최적의 발달과 관련된 가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Dorsey, Klein, & Forehand 1999), 그리고 효율적으로 양육의 과업을 완수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믿음으로 정의될 수 있다 (Teti & Gelfand, 1991; Seo, 2004).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을 하는데 있어 높은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자아형성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미치는 변인들 (가정환경, 어머니 특성, 아동특성, 사회적 지원 체계, 양육스트레스 등)의 영향력을 중재하며 (문혁준, 1999; Teti & Gelfand, 1991; Seo, 2004), 궁극적으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문태형, 2002; 최형성, 2001; Coleman & Karraker, 1998).

이처럼 양육효능감의 중요성은 일반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저출산 가정에서에서도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 져야 한다. 양육효능감 지각과 귀인소재에 있어서 집단 내 (취업모 대 비취업모) 하위 영역별 비교 및 양육효능감을 예측하는 중요 변수들 (인구사회학적 변수이외)의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소자녀 가정 내의 모자밀착에서 파생될 수 있는 양육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양육을 하는데 어머니의 심리적, 정서적 부담감은 양육스트레스라는 형태로 표출되며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양육에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서 지적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 (전춘애, 1998),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김기현, 2000), 양육스트레스와 지원체계 (강희경, 1999), 그리고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조화/부조화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한세영, 1996)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Belsky, 1984).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지지 체계가 축소되고 다른 가족원의 도움 없이 부부 둘만의 힘으로 양육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가중되는 심리, 정서적인 부담감이 양육스트레스로 나타날 때, 이는 출산을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함에 있어 배우자 및 사회적 지원체계의 형성을 양육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국내의 선행 연구결과물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신숙재, 1997; Cutrona & Troutman, 1986; Teti & Gelfand, 1991; Seo, 2004). 또한 인간과 환경을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난 호혜적인 과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출산 가정에 대한 연구 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외적 요인들 (예: 직장생활, 대체양육, 사회적 지원 체계 등을 포함한 생활전반에 관한 만족) 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일련의 출산장려정책들 (출산 축하금, 주거지원강화, 자녀교육비/양육지 지원, 출산후 육아휴직, 보육시설이용 지원, 불임치료 건강보험)을 제시하였다. 저출산이 초래하는 문제는 일한 능력이 있는 인적 자원이 줄어들면서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과 아동 수의 감소로 인하여 아동복지 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 정책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사회적 자원을 할당하는 국가적 선택의 매카니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원의 할당과 선택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과 목표가 관련되어 있다 (송근원·김태성, 1997).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을 보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원칙을 아동복지법을 통해서도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혼모 아동, 편부모가정의 아동 등 요보호아동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보호의 필요가 발생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주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주로 실시하고 있다 (이소희, 2002). 이는 현재 아동이 놓여있는 저출산 환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아동과 그 가족,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과 양육기능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아동복지 정책의 사회적 가치관과 목표 (건전한 아동육성)와의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출산을 저하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원인 중 어떠한 것에 정책적으로 접근가능한 지, 이러한 정책이 자녀 수의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저출산 관련 대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등에 관한 중요한 과제들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 정책들이 실제로 저출산 가정내에서 어느 정도로 그 실효성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제반환경을 개선하여 양육기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아동발달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의 하나로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 연구문제 1: 저출산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양육 효능감, 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저출산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사회인구학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생활전반에 관한 만족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각) 간에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저출산 가정 집단내 비교연구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기능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주요변인의 선정과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양육효능감의 지각과 귀인: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지각하는 자신감 정도와 그 자신감의 근원 (귀인소재)을 어디에 두는가의 경향; 2) 양육스트레스: 부모 됨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3)생활전반에 관련된 만족도: 직장생활, 대체양육자, 가정생활, 가정과 직장생활 병행과 관련해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만족감 정도; 그리고 4) 출산장려 정책의 실효성 지각: 저출산 가정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출산장려정책들에 관한 실효성 정도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선정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2004년 6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지역에 거주하는 저출산 가정 (1가구 1자녀)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가임여성 연령을 4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신체적 연령이 45세 이상이면 출산 및 자녀계획이 대부분 종료된 시기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총 7명의 어린이집 (2명), 유치원 (3명),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2명)를 통해 저출산 가정의 학부모를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자를 통해 저출산 가정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또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는 snowball 방식으로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을 표집하였다. 표집된 대상에게 질문지를 직, 간접적으로 배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고 회수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그 중 423부 회수된 것 중 부실기재 및 부적합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360부가 이용되었다. 저출산 가정의 양육 실태 조사 연구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작성한 총 276부만이 본 연구문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조사도구에는 저출산 가정 어머니의 사회 경제적 특성 변수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였고 자녀양육변인과 관련된 질문들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생활전반에 관한 만족도, 어머니가 지각하는 출산장려정책 실효성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

어머니에게 양육효능감을 묻는 질문은 Luster (1987)의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Scale (PPES)"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uster's PPES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지각하는 자신감을 어디에 귀인 하는가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1)우연성에 의해 기인되는 효능감 (예: "아이를 키우는 데는 운도 많이 작용한다", 총 3문항 구성, Cronbach's alpha=.75), 2)자녀에게서 기인되는 효능감(예:"내 아이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총 5문항 구성, Cronbach's alpha=.83), 그리고 3) 외생변인들에 의해 기인되는 효능감 (예: "내 아이의 미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해 많이 좌우될 것이다", 총 3문항 구성, Cronbach's alpha=.89)이다. Luster의 PPES는 세 가지 요인에 해당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비조사 시(유치원 1곳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케 한 후 회수) 요인 분석 결과 해당요인과의 요인 부하

량이 .50이하인 제외된 문항들을 제외시켜 질문을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모두 11 문항이며 5 단계의 Likert식 평정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점, “매우 그렇다”면 5점)를 사용하였다. 응답 범위는 5-55이며, 본 척도의 표준화 Cronbach's alpha 계수 (총 11 문항)는 .82이다.

2) 양육스트레스 척도

어머니의 양육전반에 관련된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서 Abidin(1983)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 (Short-Form)을 번안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회의 예비조사 (유치원 1곳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부하여 응답하게 한 후 회수) 연구결과 양육효능감척도와 높은 부적상관관계 ($r=-.78$, $r=-.69$)를 보이는 두 하위영역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P-CDI 과 Difficult Child, DC)을 제외하고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배제) 양육전반에 관련된 부모 자신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영역 (Parental Distress) 척도만을 사용하여 질문을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총 6 문항이며 5단계의 Likert식 평정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점, “매우 그렇다”이면 5점)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80).

3) 생활전반에 관한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생활전반에 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 5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어머니가 지각하는 만족정도를 1) 직장생활에서 오는 만족, 2) 주부로서 지각하는 만족, 3) 부모 역할과 직장생활 균형을 잡기 위해 선택해온 방식에 대한 만족, 4) 대체 양육자 이용에 있어서의 만족 (어린이집, 놀이방, 친인척, 유치원등)에 대한 만족, 그리고, 5)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으로서 5단계의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점, “매우 그렇다”이면 5점), 본 척도의 표준화된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는 .81이다.

4) 출산장려정책 관련 변인

본 연구에 사용된 출산장려정책 관련 변인에 관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성되었다: 1) 현재 정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출산장려 정책이 저출산 가정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로 그 실효성을 지각하고 있는가 하는-실효성 지각 (5점 척도, 6문항), 그리고 2) 앞으로 자녀출산 여부에 대한 응답자의 현재 결정과 상관없이 이러한 정책 중 자녀출산을 한번 고려하게 만드는 정책을 무엇인가-효과적인 정책제시 (1문항)이다. 출산장려정책 효율성 지각에 관한 척도(총 6문항)의 표준화된 신뢰도는 .81 (Cronbach's alpha)이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양육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평균을 사용하였다. 또한 t검증, 상관관계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저출산 가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및 양육실태

본 연구 대상자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4.22세였으며, 평균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413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 대상자들은 중상류층 (2004년 2/4분기 3인기준의 도시가계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 2,799,733원에 근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월평균 60만원 이상 자녀양육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수준 (전체 5단계)에 있어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다른 가정과 비슷한 수준 (3단계)에서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전체)은 최소 22점에서 42점의 범주를 나타내며, 1점에서 5점까지의 범위에서 평균 2.81 (양육효능감 전체 평균점수에서 총 문항수로 나눔)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육효능감 귀인소재 영역별로 평균과 범위를 살펴보면, 1점과 5점까지의 범위 중에서 우연성이 2.95, 자녀로부터 기인되는 효능감이 2.87,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인이 3.54로 본 연구 대상의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을 하는데 있어 지각하는 효능감의 근원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인의 탓으로 더 많이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1점에서 5점까지의 범위에서 최소 6점에서 최대 29점까지의 범주를 나타내며, 평균 3.16 (양육스트레스 전체 평균점수에서 총 문항수로 나눔)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보통수준보다는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저출산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인구학적인 특성 포함)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아동변인 (연령, 성별), 가정환경변인(월평균소득, 자녀양육비), 그리고 어머니변인 (연령, 취업유무, 양육스트레스, 생활전반만족도, 출산장려정책 효율성 지각)들 가운데에 저출산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과 그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일차적으로 분석에 투입된 변

<표 1> 저출산 가정 연구 대상자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변인	구분	취업모 가정 빈도 (%) / M	비취업모가정 빈도 (%) / SD	전체 N=276 M (SD)/범위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8(8)	36(29)	34.22 (4.25)
	31~35세	43(39)	65(53)	
	36세~40세	47(43)	17(14)	
	41세 이상	11(10)	5(4)	
어머니 학력 (1~7)	고졸이하 (4)	7(6)	6(5)	6 (.79)
	초대졸 (5)	12(11)	15(12)	
	대졸 (6)	49(45)	80(65)	
	대학원 이상 (7)	41(38)	22(18)	
월평균가족총소득 (만원)	300만원 이하	26(24)	74(64)	413.24(390.63)
	301~400만원	45(42)	17(15)	
	401~500만원	19(18)	14(12)	
	501만원 이상	17(16)	10(9)	
자녀연령	5세 이하	68(62)	94(76)	5.30 (4.08)
	6~10세	26(24)	14(11)	
	11~15세	13(12)	12(10)	
	16~20세	3(2)	3(3)	
월평균 자녀양육비 (만원)	40만원 이하	31(28)	61(50)	60.92(43.91)
	41~80만원	41(37)	37(26)	
	81만원~120만원	32(29)	14(11)	
	121만원 이상	6(6)	10(13)	
자녀양육비 수준 (1~5)	1=매우 적은 수준	0(0)	7(6)	3.49 (4.05)
	2=약간 적은 수준	30(28)	24(19)	
	3=다른 가정과 비슷한 수준	60(57)	62(49)	
	4=약간 많은 수준	14(13)	29(23)	
	5=매우 많은 수준	2(2)	0(0)	
자녀 출산을 한 번 더 고려하게 만드는 정책 제시	출산장려금	0	1(0)	
	아파트 우선 분양	0	7(3)	
	자녀교육/양육지원비	10(4)	50(22)	
	산전 후 & 육아휴직 확대	30(13)	15 (7)	
	보육시설 확충	29(13)	29(13)	
	불임치료 및 영구피임복원 시술에 건강보험적용	20(9)	3(1)	
양육효능감(전체)	25이하	9(8)	3(2)	M(SD) 2.81(.30) 범위=22~42
	26~30	43(39)	49(40)	
	31~35	53(48)	59(48)	
	36이상	5(5)	12(10)	
양육효능감 하위영역 (귀인소재)	하위영역 1 (우연성)	M=2.95	SD=.47	범위=1.33~4.67
	하위영역 2 (자녀)	M=2.87	SD=.71	범위=1.25~5
	하위영역 3 (외생변인)	M=3.54	SD=.56	범위=2~5
양육스트레스	10이하	4(4)	1(1)	M(SD) 3.16(.69) 범위=6~29
	11~20	68(63)	84(69)	
	21~30	36(33)	37(30)	

수들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두 $r=.50$ 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회귀 현상의 존재를 살펴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이 계수가 1.91로 나타나 자기회귀 현상의 부재에 대한 기본가정이 충족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와 같이 기본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한 후 실시한 중다회귀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저출산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276)

독립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아동변인			
아동성별 ^a	-.01	-.09	-.16*
아동연령	.28***	.28***	.59***
가정변인			
월평균소득		.14*	.14*
자녀양육비		.02	.03
어머니변인			
연령			.22*
취업 ^b			-.17*
양육스트레스			-.33***
생활만족도 (전체)			.20*
출산장려정책효율성			.27*
R-square	.08	.09	.32
△R-square		.01	.23
F	5.95***	5.95***	6.90***

*p<.05, **p<.01, ***p<.001

<표 3>에는 표준화된 beta계수가 제시됨

가변수: a) 여아=0, 남아=1, b)비취업=0, 취업=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변인, 가정환경변인, 어머니 변인을 차례로 첨가하여 본 결과, 아동변인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비율은 8%로 나타났으며, 가정환경변인을 첨가하여 분석하였을 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이 양육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이 1%증가하여 9%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변인을 첨가하였을 때 설명력이 23% 증가하여, 아동, 가정환경, 어머니 변인 전체가 어머니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영향력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을 고려하였을 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특성 중 연령 (beta=.59, p<.0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beta=-.33, p<.001), 출산장려정책 실효성지각 (beta=.27, p<.05), 어머니 연령 (beta=.22, p<.05), 생활만족지각 (beta=.20, p<.05), 어머니 취업유무 (beta=-.17, p<.05), 아동성별 (beta=-.16, p<.05), 월평균소득 (beta=.14,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게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생활에 더 만족할수록,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여아보다는 남아를 양육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저출산 가정의 집단내 비교연구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주요변인에 있어서의 차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는 집단 (N=166)과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집단 (N=110)으로 나누고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주요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포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월평균 소득, 대체/대리 양육자에 대한 만족도, 자녀 양육비 수준, 응답자 본인 (어머니) 연령, 배우자 연령, 자녀 연령, 결혼 후 출신시기에 있어 비취업모 가정과 취업모 가정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비취업모 가정에서도 111명의 응답자 (전체 166명 중)가 어떤 형태의 대체 양육자 (조부모, 친척, 어린이집, 유치원등)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자 이용 시 어머니가 지각하는 만족도에 있어서는 취업모 가정의 어머니가 비취업모 집단의 어머니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에 있어서는 비취업모 집단이 취업모 집단에 비해 자녀 양육에 있어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양육효능감의 귀인 소재에 있어서는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비취업모 집단이 취업모집단에 비해 양육효능감의 근원을 우연성이나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더 많은

<표 3>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

변인	비취업모 가정 N=166 M (SD)	취업모 가정 N=110 M (SD)	t
월평균소득	334.87 (154.26)	496.17 (558.24)	-2.98**
대체양육만족도	2.78 (.89)	3.19 (.92)	-3.30**
자녀양육비	55.68 (46.92)	64.32 (37.34)	-1.54
자녀양육비수준	2.93 (.81)	3.87 (5.14)	-2.01*
본인 (어머니) 연령	32.86 (3.81)	35.44 (3.96)	-5.01***
배우자 연령	35.38 (4.00)	37.44 (4.27)	-3.79***
첫 자녀 출산시기 (결혼 후 몇 년 경과)	1.57(.94)	2.03 (1.67)	-2.60*
자녀 연령	4.48 (3.84)	5.63 (4.01)	-2.23*
양육효능감 지각 척도 (전체)	32.73 (3.31)	31.31 (2.99)	2.52*
양육효능감 (귀인소재) 하위영역1 우연성	10.65 (1.44)	9.21 (1.20)	2.12*
양육효능감 (귀인소재) 하위영역 2 자녀에게서 기인하는 효능감	13.21 (1.23)	12.87 (1.32)	1.89
양육효능감 (귀인소재) 하위영역 3 외생변인으로부터 기인하는 효능감	9.24 (1.47)	8.78 (1.12)	2.03*
양육스트레스 척도 (전체)	18.78 (3.85)	18.98(4.43)	-.30
출산장려정책 효율성지각 척도 (전체)	17.50 (4.25)	17.60 (4.54)	-.17
출산장려정책 효율성지각 척도 중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정책	3.41 (.79)	3.70 (.99)	-2.18*

*p<.05, **p<.01, ***p<.001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에 있어 이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제시된 일련의 출산 장려정책들 중에서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정책에 있어서만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 집단에 비해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정책에 있어 그 실효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출산을 저하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저출산 가정의 양육실태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중심으로)를 살펴보고, 저출산 가정 집단 내 비교 연구로서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생활전반에 관한 만족도,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 지각 정도를 어머니의 취업여부 (집단내 비교)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가정의 양육실태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본 연구 대상의 어머니들은 그다지 높지 않은 양육효능감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효능감의 귀인소재를 우연성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돌리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본 연구 대상의 어머니들은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수준과 월평균 소득수준)에서 있어 중상류층에 속하지만 이들의 높지 않은 양육효능감 (2.81/5.00)은 양육에 대한 무력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저출산 가정 집단 내 비교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취업모 가정에서 보다는 비취업모 가정에서 더 높은 효능감을 지각하고 있었고 효능감의 귀인소재를 우연성과 비통제 변인에 두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의 정적인 관계를 밝힌 국내외의 선행 연구 (우희정, 이숙, 1994; 전인옥, 이경옥, 1999)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효능감과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개인적 요인 (부모 또는 자녀의 특징)보다도 외부적인 요인 (행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의 탓으로 돌린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 양육에 자칫 소홀히 하거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증제가 요구된다. 이에 자신이 행하고 있는 자

녀 양육에 대해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무된 자신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가정 상담지원이나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실시 등의 사회적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비고집단에 비해 양육의 보다 현실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양육효능감 지각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Luster, 1987; Seo, 2004).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함께 면접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양육기능 강화와 아동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저출산 가정의 자녀양육 관련변인들, 특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 연령, 양육스트레스, 출산장려정책 실효성지각, 어머니 연령, 생활만족도, 어머니의 취업유무, 아동성별, 월평균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사회인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요인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동관련요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성별과 연령)이 양육효능감 예측모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사회인구학적 변인 이외의 또 다른 아동관련 변인 (예: 기질, 문제행동),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이 어떤 구조로 서로 상호작용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효능감의 귀인소재를 외부적 변인의 탓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 논의해 본다면, 사회적 상황 (가족정책)이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는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귀인소재 규명과 함께 양육에 대한 능력 지각 측정에 있어 여러 영역 별로 나누어 영향력 있는 변인들을 살펴보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나아가 양육행동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함으로써 변인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심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인 어머니들은 보통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내 비교분석의 결과에서도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함으로써 이 중고를 겪고 있는 취업모 가정이 비취업모 가정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두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자녀출산을 고려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 <표1>을 각각 다르게 보고한 결과와 연결해서 논의될 수 있다. 취업모는 육아휴직 정책을 자녀출산의 고려사항으로 보고하고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 교육과 양육비 지원 측면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에 자녀출산과 양육에 있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르며 따라서 각각 양육의 다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지각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취업모와 비취

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양육과 관련해 두 집단간에는 필요로 하는 점이 다르므로 각각 다른 측면의 필요성으로 인해 유사한 양육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한세영, 2004). 양육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양육스트레스의 관련요인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넷째, 정부에서 제시하고 일련의 출산장려정책들 (출산 축하금, 아파트 분양 등 주거지원 강화, 자녀 교육비 지원 및 자녀 양육비 세제 감면,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 불임치료 혹은 영구피임복원 시 건강보험 적용) 출산 향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지, 특히 저출산 가정에서 지각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양육강화기능 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출산 장려정책들 중에서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정책에 있어서만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 집단에 비해 취업모집단에서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정책에 있어 그 실효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대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각 가정 (저출산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교육하는데 있어 다양한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인구부양책으로서가 아닌,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의 주요 근원지인 가정내에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자녀를 낳아 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인식부터 재정립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재정적 지원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도 돌봄 노동의 핵심이 여성에게 국한되어 있고, 모성보호와 육아정책이 여전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녀양육을 위한 부성휴가제도, 자녀양육 후 직장복귀의 정당성 확보 및 가족휴가제도 (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련된) 등의 도입과 시행으로 자녀 양육의 문제는 양성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정책적으로 접근가능한지, 출산 향상에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떠한 정책이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 (자녀관, 양육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전반의 만족도 중 대리/대체 양육자 만족에 있어서만 취업모 집단이 비취업모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직장생활로 인하여 취업모 집단이 상대적으로 비취업모 집단에 비해 그들의 자녀와 많은 시간 격리되어 있고 이에 따른 모친불안이나 죄책감에 대한 심리적 보상으로서 더 높은 만족감을 가진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취업모 가정과 비취업모가정의 소득이 유의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취업모 가정이 보다 양질의 보육시설과 대리양육자를 선택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에 따른 높은 만족감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대리/대체 양육자 범주(조부모, 가정용 보육, 어린이집, 유치원)를 사용하였기에 결과해석에 있어 보다 신중함을 요구한다. 또한 생활전반에 관한 만족도 척도는 어머니의 직장유무에 따라 다르게 측정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 척도 중, 특히 대리양육의 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저출산 가정과 일반가정(저소득층 계층 포함)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켜 대리양육에서 오는 만족감에 대한 집단간 확장,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학적 관점에서 저출산 가정의 양육실태조사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대상자의 표집과정과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조사하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본 연구를 위해 재구성된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를 제외한 다른 두 척도(생활전반에 관한 만족도 척도와 저출산 정책 실효성 측정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도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면에서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양육과 관련된 주요 변인간의 관계성을 밝히고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만으로 여기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현 시점에서 정책의 실효성 지각정도가 어머니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과 저출산 가정의 집단내 분석을 통해 추후 정책 수립 및 시행 시 개별 가정의 다양한 양육가치관,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접수 일 : 2004년 12월 26일

□ 심사 일 : 2005년 02월 01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4월 11일

【참 고 문 헌】

김승권 (2004). 한국사회 출산율 변화의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 인구학회 전기 학술대회 -저출산시대의 신 인구정책자료집.

김기현 (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16.

김경숙 (1993). 취업모의 가정관리능력과 행동유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희경 (1999). 3세 이하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어머니의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2), 41-55.

문혁준 (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 효능감이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박성연·임미리 (2002). 취업모의 직업관련 특성, 탁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57-68.

송근원·김태성(1995). *사회복지정책*. 서울: 나남.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희정·이숙(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 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1), 71-91.

이소희(2002). *아동복지학*. 서울: 양지.

이영 (1986). 전문직 취업모의 자녀관리 현황조사. *아동학회지*, 17(1), 1-23.

이정우·강기연 (1998).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 *대한민국학술원 논문집*, 209-233.

전인옥·이경옥 (1999).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전춘애 (1998).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 95-105.

조용수 (1996). *한국의 신세대 혁명*. 서울: LG 경제연구원.

최경수 (2004).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추이에 대한 분석.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저출산 시대의 신 인구정책 자료집*.

최형성(200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통계청 (2003). *인구동태연보: 인구동태신고에 의한 집계*. 대전: 통계청.

한국여성개발원 (2003). *여성통계연보*.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한세영 (2004). 저출산가정의 자녀양육. *한국가정관리학회*, 36차 추계학술대회 토론자료.

한세영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andura, A. (1989).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es through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 729-235.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Coleman, P.K., & Karraker, K.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Cutrona, C., & Troutman, B.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Dodge, K.A. (1990). Special secti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67.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295-305.
- Fuqua, R. W., & Labensohn, D. (1986). Parents as consumers of child care, *Family Relations*, 35, 295-303.
- Luster, T., & Kain, E. (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3), 301-311.
- Seo, S. J. (2004). Maternal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quality of parenting.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4), 11-27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